

## The Influence of the magazine The Deep Rooted Tree on the Perception of Publishing Culture and Tradition

Lee, Kwang-pyo

Associate Professor, Seowon University, Korea

kpleedonga@hanmail.net

### Abstract

**Objectives** The monthly magazine “Ppurigipeun Namu(Deep Rooted Tree)”(March 1997 to August 1980) not only presented new milestones to Korean magazine history but also contributed greatly to preserving and inheriting traditional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 and cultural property, this paper examined the traditional elements of “Ppurigipeun Namu” and the awareness of tradition of Han Chang Ki(1936~1997).

**Methods** Han Chang Ki published “Ppurigipeun Namu” to rediscover, share and inherit the meaning and value of traditional culture. “Ppurigipeun Namu” deals with tradition and people’s content, but the ways of delivering it were modern and sophisticated. Until then, it was a new and unfamiliar way that Korea’s magazine and traditional cultural circles had never experienced. This method was notable in the horizontal writing for Hangeul(Korean language), cover design and the planning series of ‘People’s Heritage.’ This was the result of the agony of what is the essence of tradition and how to embrace and carry on tradition in our time.

**Conclusions** Han Chang Ki recognized and practiced that traditional culture comes from everyday life based on Korean language and the sentiments of the people, that it is effective to accept it through sophisticated, visual forms and media in order for people of this era to enjoy and inherit the tradition, and that it must be modern and future-oriented. This was the traditional awareness of Han Chang Ki, and the monthly magazine “Ppurigipeun Namu” was the place of practice in which such awareness was expressed in detail. Through the new and unfamiliar form of “Ppurigipeun Namu”, the public was able to expand their awareness of tradition and cultural heritage in greater depth.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Han Chang Ki and the practice of “Ppurigipeun Namu” are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 new perspective on tradition, folklore and cultural properties.

**Keywords** Han Chang-ki, Suncheon City's Deep-rooted Tree Museum, The Deep-rooted Tree, The Deep-rooted Water, Hangeul Proclamation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4.10.312.003

Received: Sep. 20. 2024 ; Reviewed: Oct. 10. 2024 ; Accepted: Oct. 15. 2024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 잡지 『뿌리깊은나무』가 출판문화와 전통 인식에 미친 영향\*

## 이광표

### 목 차

1. 머리말
2. 한창기와 『뿌리깊은나무』 창간
3. 『뿌리깊은나무』의 콘텐츠와 디자인
4. 『뿌리깊은나무』가 출판문화와 전통 인식에 미친 영향
5. 맺음말 : 잡지 미학을 통한 전통 인식

## 1. 머리말

한창기(韓彰琪, 1936~1997)는 1970~1980년대 월간지 『뿌리깊은나무』와 『샘이깊은물』을 발행한 출판인이었지만 그의 이력은 다채롭고 흥미롭다. 미국행 비행기표와 영어 성경책, 영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판매한 세일즈맨이었고 한국브리태니커를 운영한 경영인이기도 했다. 판소리 감상회 개최와 판소리 다섯 마당 음반 간행, 옹기·백자 반상기 현대화와 잎차 대중화 등 전통을 보존·전승하고 대중화하는데 헌신한 전통문화예술 실천가이자 문화유산 6,400여 점을 수집한 컬렉터이기도 했다.

한창기가 남긴 여러 흔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1976년 3월부터 1980년 8월까지 4년 6개월에 걸쳐 월간지 『뿌리깊은나무』를 발행한 일이었다. 『뿌리깊은나무』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한국잡지사에 획을 그었고 이후의 잡지 편집과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 이 글은 제578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2024년 10월 8일에,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뿌리 깊은 나무 발행인 한창기의 전통 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학회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기존에 발표했던 필자의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미쳤다.

월간지 『뿌리깊은나무』는 1980년 강제 폐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뿌리깊은나무』를 거론할 때마다 발행인 한창기를 함께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창기는 “전통 문화에 대한 남다른 안목과 애정을 갖고 있던 인물,”<sup>1</sup> “한국 문화계의 심미적 천재,”<sup>2</sup> “탁월한 미의식을 통해… 한국적 편집디자인의 전형을 보여준”<sup>3</sup> 인물 등으로 회자된다. 한창기 10주기였던 2007년 이래 유고집과 추모집 발간, 박물관 개관, 다큐멘터리 방송, 기념 전시 등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이어져 왔다.<sup>4</sup> 이렇게 한창기와 『뿌리깊은나무』에 대한 기억은 계속 전승되고 있으며 그의 안목과 열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외는 여전하다.

이 논문은 53회에 걸쳐 발행된 월간지 『뿌리깊은나무』가 우리 사회의 출판문화와 전통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한창기가 1976년 『뿌리깊은나무』를 창간하게 되는 과정을 먼저 살피고 『뿌리깊은나무』의 내용상·형식상 특징(콘텐츠와 디자인)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창기가 어떤 생각으로 잡지를 창간했는지, 잡지 속에 그의 철학(전통 인식과 출판 철학)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어 『뿌리깊은나무』가 당대의 출판 문화와 전통 인식에 끼친 영향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해 보겠다.

## 2. 한창기와 『뿌리깊은나무』 창간

### 2.1. 우리말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한창기는 대학 졸업 후인 1960년대 초부터 경기도 의정부의 미8군 영내에서 미군 병사들

- 
- 1 이태화. (2015).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 개최의 의미와 판소리 부흥에 끼친 영향. 한국언어문학, 95. 210.
  - 2 ‘뿌리깊은나무의 미래’ 전시회 브로슈어, 서울시민청 갤러리, 2017년 4월.
  - 3 박암중. (2000). 문화교양지 <뿌리깊은나무>의 편집 및 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서올대학 논문집, 22(1). 66.
  - 4 2007년 한창기의 글을 모은 책 『뿌리깊은나무의 생각』, 『샘이깊은물의 생각』, 『배움나무의 생각』(이상 휴머니스트)이 발간되었고 2008년에 그를 추억하는 글 모음집 『특집! 한창기』(창비)가 발간되었다. 2009년 광주 문화방송(MBC)에서 한창기의 삶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으며 2011년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옆에 한창기의 컬렉션 6,400여 점과 관련 자료를 소장·전시하는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개관했다. 2016년엔 월간지 『뿌리깊은나무』와 『샘이깊은물』 전권을 선보이는 전시회 《1976년의 봄과 1984년의 가을》(2016년 10월 8일-10월 30일, 서울 성북구 갤러리 17717)이 열렸고 2017년엔 한창기 20주기를 기념하는 전시회 《뿌리깊은나무의 미래》(2017년 4월 18일-4월 30일, 서울시청 시민청갤러리)가 열렸다.

을 대상으로 미국행 비행기표와 영어 성경책을 팔았다. 그 과정에서 영어로 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세일즈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다. 한창기는 미국 본사로 영문 편지를 보내 한국 판매를 요청했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1968년 1월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커 코리아를 설립했고 그해 4월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sup>5</sup> 한창기는 이듬해인 1969년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1970년 5월에 사장이 되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세일즈가 번창하던 1970년 1월 한창기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실린 한국 항목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국내 역사문화 분야의 전문가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과정은 영어 백과사전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한창기는 1970년 주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며 미국의 문화정책을 연구하던 곽소진(郭少晋, 훗날 한국저작권센터 회장)과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자 문화재위원이었던 예용해(芮庸海)를 만나 교류하기 시작했다. 한창기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나갔다.

한창기는 1970년대 초부터 예용해와 함께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직접 수집하기 시작했다. 곽소진의 증언에 따르면, “한창기는 예 선생을 따라 하루가 멀다 하고 인사동을 드나들면서 토기, 백자, 민화를 통해 한국 전통의 미를 열정적으로 섭렵해나갔다.”<sup>6</sup> 한창기는 청자, 백자, 회화, 금동불상과 같은 고미술 문화재보다는 토기, 석물, 민화, 목가구, 의식주 관련 유물 등 민속 문화유산을 주로 수집했다.<sup>7</sup>

1971년 한창기는 곽소진의 소개로 민화 수집가이자 연구자인 조자용(趙子庸)을 만나 민화 컬렉션을 접했다. 한창기는 1972년 4월 서울 삼일빌딩에 자리 잡은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커코리아 내 벤튼홀에서 조자용과 함께 민화전 《한국 민화의 멋》을 개최했다. 이 전시

5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커 코리아의 첫 대표는 브리태니커 극동 담당 부사장이었던 프랭크 비 기브니가 겸임했다. 그러나 사실상 한창기가 운영하는 회사로 출발했다. 강운구 외. (2008). 특집! 한창기. 서울: 창비. 442.

6 곽소진. (2008). 그를 생각하며,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일. 157.

7 한창기의 문화유산 수집 과정에 관한 일화는 곽소진 외. (2008). 다시 보고 싶은 한창기의 골동. 134-151. 한창기는 1997년 타계할 때까지 6,400여 점의 컬렉션을 형성했다. 그의 컬렉션은 재단법인 뿌리깊은나무가 보관해오다 전남 순천시에 기탁했고 2011년 개관한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소장 전시하고 있다. 한창기 컬렉션의 개요에 관해선 다음의 단행본을 참조.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2011). 뿌리깊은나무. 순천: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에는 조자용의 소장품 가운데 민화 33점이 출품되었다. 당시는 민화에 대한 관심이 척박하고 민화 전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창기는 민화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한창기는 우리말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그는 1974년 「우리말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인 연구: 경어법의 역사적 변천을 중심으로」라는 석사 논문으로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한창기는 1973년 한글학회 회원이, 1974년에 한글문화협회 회원이 되었다.

한창기는 1974년 1월 18일부터 1978년 9월 29일까지 100회에 걸쳐 판소리 감상회를 개최했다. 당시 판소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던 정병욱(鄭炳昱)이 1973년 한창기에게 지원과 공동주최를 요청했고 한창기가 이를 수락하면서 감상회가 시작되었다. <브리태니커 판소리 감상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판소리 감상회는 『뿌리깊은나무』 창간 직후인 1976년 4월부터 <뿌리깊은나무 판소리 감상회>로 이름을 바꾸고 감상회 개최 시기도 매월 1회에서 매주 1회로 변경했다. 당시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상황에서 한창기가 기획한 감상회는 판소리의 존재감을 알리고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sup>8</sup>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팔기 시작한 1968년 이후 한창기는 우리의 전통과 민속, 우리말과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의 전승과 향유, 보존을 위해 하나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다.

## 2.2. 브리태니커 사내보 발간

한국브리태니커를 이끌던 한창기는 1970년 3월 사내보 『배움나무』를 창간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고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한 월간지(격월간으로도 발행)였다. 『배움나무』는 문고판 크기의 자그마한 문화교양지로, 1976년 초까지 6년 동안 거의 매달 총 62회에 걸쳐 발행되었다. 『배움나무』는 1972년부터 판권기에 “교육, 문화 및 환경에 관한 글을 실어서 한국 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외래 문화의 바람직한 토착화를 통한 새로운 민족 문화의 토양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행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해놓았다.

『배움나무』는 전체적으로 역사, 전통, 민속, 일상,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실었고 가로쓰기 편집이었다. 『배움나무』 초창기에 해당하는 1970, 1971년엔 역사와 전통에 관한 내용

8 정병욱. (1982). 브리태니커 판소리 전집의 출판에 부쳐. 판소리 다섯마당. 서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3.

도 다뤘지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판매를 위한 목적이 강하게 드러났다. 백과사전을 구입하는 독자층을 위한 내용(미국 문화, 영어 관련 내용, 영어공부 교재 홍보 등)과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을 위한 내용(미국 문화 상식과 교양 등)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72년 중반부터는 우리의 역사, 전통, 민속,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글이 대폭 늘어나 매호 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토기, 옹기, 석장승, 붓꽃이, 줄타기 광대, 보부상 등 민속 문화유산이 표지 이미지로 자주 등장했다. 『배움나무』를 발행했던 시기는 한창기가 우리말과 전통 문화에 점점 몰입해가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은 없었고 당시 잡지의 평균적인 디자인 수준에 머물렀다.

한창기는 『배움나무』를 발행하는 동안 이 잡지를 일반 독자용 종합교양지로 확대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sup>9</sup> 당시는 정기간행물의 발행 인가가 무척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언론 통제의 일환으로 정기간행물 발간을 까다롭게 규제했기 때문이다. 한창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배움나무』를 새로운 잡지로 연결시켜야겠다는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뿌리깊은나무』 창간호가 법적으로 ‘제7권 제2호’로 발행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창기는 특히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고품격의 세련된 잡지를 내고 싶어했다.<sup>10</sup>

한창기가 『배움나무』를 발행한 6년의 세월은 『뿌리깊은나무』 창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잡지 자체를 만들어보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창기의 타고난 심미안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잡지 디자인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이다.

### 2.3. 월간지 『뿌리깊은나무』 창간

1970년대 전반기에 한창기는 우리말 연구, 민화 전시, 판소리 감상회 개최, 민속 문화유산 수집 등을 통해 전통 문화와 민중 정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심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판매 사업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창기는 당시 깊게 교유했던 곽소진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은 잡지 창간이었다. 게다가 한국브리태니커 사내보 『배움나무』를 발행하면서 아쉬

9 손세일. (2008). 뿌리깊은나무의 탄생: 그 열정과 안목과 집념이 산파였다. 49.

10 손세일. (2008). 51.

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기에 잡지에 대한 열망은 더 컸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곽소진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브리태니커가 크게 성공하면서 그는 두 가지 소망을 키웠다. 하나는 값비싼 백과사전을 부자들에게 팔아서 돈 번다는 장안의 안 좋은 평판을 뒤집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잡지를 창간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잡지 창간을 통해 세상의 평판을 뒤집으라고 귀띔해주었다. 그것도 한갓 엔터테인먼트에 충실한 잡지가 아닌, 사회에 공헌하는 잡지를 만들라고 제안했다. 우리는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외국 기업의 풍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시대 상황에서 한 사장 몫의 사회 환원은 전통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기능을 할 잡지를 펴내는 일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물로서 잡지 뿌리깊은나무가 거둔 성과와 영향력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알차고 컸다.<sup>11</sup>

월간지 『뿌리깊은나무』는 1976년 3월 창간되었다. “한국의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바치는 월간 잡지”라는 창간호 문구처럼 문화주의를 표방했고, 창간사 「도량을 파기도 하고 보를 막기도 하고」에서 드러나듯 토박이 문화와 전통, 민중 정서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뿌리깊은나무》는 우리 문화의 바탕이 토박이 문화라고 믿습니다. 또 이 토박이 문화가 역사에서 얽잡힌 숨은 가치를 펼치어, 우리의 살갓에 맞닿지 않은 고급 문화의 그늘에서 시들지도 않고 이 시대를 휩쓰는 대중문화에 치이지도 않으면서, 변화가 주는 진보와 조화롭게 만나야만, 우리 문화가 더 싱싱하게 뻗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는 이 땅에 정착한 토박이 민중이 알타이말의 한 갈래인 우리말로 이 땅의 환경에 걸맞게 빚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말과 이 땅의 환경은 문화발전의 수레인 교육과, 문화의 살결인 예술과 함께 《뿌리깊은나무》가 톺아보려는 관심거리입니다.<sup>12</sup>

그러나 아쉽게도 『뿌리깊은나무』는 장수하지 못했다. 1980년 8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53호를 발간하고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다.<sup>13</sup>

11 곽소진. (2008). 157.

12 한창기. (1976). 도량을 파기도 하고 보를 막기도 하고. 뿌리깊은나무, 3. 171.

13 1980년 6, 7월호는 합본호로 발간했으며 1980년 8월호는 발간은 되었으나 배포하지는 못했다.

### 3. 『뿌리깊은나무』의 콘텐츠와 디자인

#### 3.1. 한창기와 이상철의 만남 : 국내 최초의 아트디렉션

『뿌리깊은나무』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며 대중 잡지에 대한 통념을 무너뜨렸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편집디자인이었다. 그것은 신선한 제호, 과감한 표지 디자인, 한글 전용 가로쓰기, 글꼴의 혁신, 아트디렉션 제도 도입, 잡지 광고 디자인의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sup>14</sup>

파격적인 디자인은 발행인 한창기와 디자이너 이상철의 만남에 의해 실현되었다. 꼼꼼하고 빼어난 미적 감각을 지닌 한창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의 잡지를 발행하고자 했다.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디자이너 이상으로 편집디자인에 애착을 갖고 있었다.<sup>15</sup>

『뿌리깊은나무』가 보여준 디자인 혁신은 창간호부터 시작되었지만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건 창간하고 6개월이 지난 1976년 9월호부터였다. 이때부터 발행인 한창기는 당대 최고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 꼽혔던 디자이너 이상철에게 잡지 디자인의 전권을 부여했고 이로써 이상철 스타일의 편집디자인이 본격화되었다.<sup>16</sup> 편집자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잡지 제작의 진행과 최종 판단을 한다는 것은 파격이 아닐 수 없었다. 월간지 『뿌리깊은나무』가 “한국 출판계는 물론 잡지 편집디자인사에 분수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상철과 한창기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sup>17</sup>

1976년 9월호를 기점으로 제호와 글씨의 크기, 목차 지면 등의 디자인이 안정화되었다. 과감하고 매력적으로 사진을 편집하면서 포토에세이(원색 화보)의 디자인도 세련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뿌리깊은나무』의 본격적인 아트디렉션이 시작되었고 그 덕분에 잡지의 시각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sup>18</sup>

『뿌리깊은나무』는 이렇게 우리의 출판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트디렉션 제도를 도입한 잡지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의 잡지는 단순한 활자 조판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보니 잡지의 디자인은 틀에 박힌 레이아웃과 문선공(文選工)들의 조판운용 방식에 갇혀 있을 수밖에

14 박암중. (1997). 출판을 통해 한국미를 구현한 고 한창기. 비블리오필리, 8.

15 박암중. (2001). 문화교양지 <뿌리깊은 나무>의 편집 및 디자인에 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 9(1), 67.

16 디자이너 이상철의 기본적인 이력에 관해선 박암중. (2001). 69.

17 박암중. (2001). 68.

18 박암중. (2001). 71.

없었다.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창기와 이상철이 이끄는 『뿌리깊은 나무』는 이러한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아트디렉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디자이너가 지면 디자인, 사진 편집, 타이포그래피와 일러스트레이션 등 시각적인 요소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철은 기존의 활판 조판의 경직된 틀을 탈피해 자신의 창의성과 미감을 반영한 새로운 그리드 시스템을 창안해 편집에 적용했다. 이상철 스타일의 그리드 시스템은 표지와 목차, 본문, 광고 등에 효과적으로 구현되었다. “표지, 목차, 본문, 광고 등의 크기와 위치를 매호 일관성 있게 적용시킴으로써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했고 그 결과 『뿌리깊은 나무』만의 독특하고 세련된 스타일이 태어날 수 있었다.<sup>19</sup>

## 3.2. 디자인 측면의 특징과 성취

### 3.2.1. 표지 디자인과 낫설게 하기

『뿌리깊은 나무』는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파격적이고 참신한 표지 디자인을 선보였다. 창간호 표지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표지 위쪽에 훈민 정음체의 제호를 큼지막하게 배치하고 표지의 나머지 전체를 한 컷의 사진으로 꽉 채웠다. 잡지 기사의 내용이나 제목으로 가득 채우는 기존 잡지의 표지와 달리 『뿌리깊은 나무』는 제호와 사진만으로 표지를 가득 채운 것이다.

당시까지 국내 잡지의 제호는 대부분 한자어 명사형에 글자 수는 2~4자 정도로, 대체로 거창하고 관념적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식어가 들어가는 6글자의 우리말 제호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다소 엉뚱한 분위기였으며 이 덕분에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했다.

창간호 표지엔 쌀을 한 움큼 퍼 올리는 농부의 거친 두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실렸다. 속표지에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이라고 사진 제목을 달았다. 이 클로즈업 사진은 ‘농부’와 ‘쌀’이라는 두 개의 이미지를 통해 민중의 생명력,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 전통의 중요성과 같은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해주었다. 컬러 사진이지만 갈색 톤으로 흑백 사진의 분위기를 띠고 있다. 컬러 사진으로 대상을 선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갈색 톤으로 농부의 손이 지니고 있는 전통, 흙, 민중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 창간호의 이 같은 표지 디자인은 독자들에게 시각적인 충격

19 박암중. (2001). 71-72.

을 주었다.

창간호 표지디자인에는 중요하고 상징적인 요소들이 상당수 담겨 있다. 순우리말의 신선한 제호, 모듈화로 개발한 전통 스타일의 한글체(훈민정음체), 과감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파격적인 사진 편집 등.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발행인 한창기가 추구하려 했던 잡지의 철학과 미학이었다.

### 3.2.2. 한글 가로쓰기와 목차의 미학

『뿌리깊은나무』는 시종 한글 전용 가로쓰기를 고수했다. 1970년대에 한글 전용 가로쓰기 편집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파격이었다. 디자인 측면에서 한글 전용 가로쓰기는 영어나 한자와 혼용할 때 노출되는 편집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른 자간(字間)을 확보해 문장의 시각적 통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20</sup>

가로쓰기는 그 자체로 조판의 틀이 바뀌는 것으로 “잡지의 시각적인 표현 논리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그 덕분에 그때까지의 단행본과 잡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목차 지면이었다. 『뿌리깊은나무』는 창간호부터 한글 전용 가로쓰기에 어울리는 목차 지면 디자인을 내놓았다. 목차 지면은 기존의 잡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한 디자인이었다. 지면의 공간 구성이 새롭고 질서정연해졌으며 여백의 산뜻함이 두드러졌다. 또한 공간을 구획하는 세련된 가로선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글 전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뿌리깊은나무』는 전용 서체를 디자인했다. 그것이 제호로 쓰인 ‘뿌리깊은나무’ 훈민정음체다. 이 제호 글씨체는 훈민정음 서체를 기본으로 삼았지만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모듈화해 이상철이 디자인했다. 이는 “한글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틀 안에 모아쓰기보다는 모듈화를 통한 탈(脫)네모틀을 지향해야 한다”는 한창기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sup>22</sup> 우리나라 최초로 모듈화된 훈민정음체의 제호는 다른 잡지와 차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뿌리깊은나무』의 전용서체로 활용함으로써 잡지 디자인

20 “당시 양끝맞추기(justified)를 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나 영문자는 자간(字間)의 기준이 한글 활자와 틀려 ‘자간 조절’이 어려웠다. 그러나 한글 전용은 모든 한글활자의 자간이 동일함으로써 고른 자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른 잡지와 달리 <뿌리깊은 나무>가 시각적 통일감이 있고 문장의 글자가 고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암중. (2001). 70.

21 이남수. (2001). 잡지저널리즘 입장에서 본 다큐멘터리 사진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37.

22 박암중. (2001). 72.

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국내의 탈네모틀 활자 개발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sup>23</sup>

또한 『뿌리깊은나무』는 한글 전용, 가로쓰기, 훈민정음체 등에 걸맞게 새로운 시각적 요소를 다채롭게 활용했다. 옛 목판의 꺾선, 목판체, 전통 문양, 느낌표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시각적인 참신성을 창출해냈다. 당시까지 다른 잡지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뿌리깊은나무』 특유의 디자인 요소였다.

### 3.2.3. 파격적이고 참신한 사진

『뿌리깊은나무』는 창간호부터 전문 사진 기자제를 도입했다.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파격이었다. 이 덕분에 현장감 넘치고 독창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재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진을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레이아웃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점이다.<sup>24</sup>

이러한 사진 편집은 표지와 포토에세이, 〈민중의 유산〉과 같은 기획시리즈에서 두드러졌다. 표지의 경우엔 파격적인 트리밍과 클로즈업의 방식을 자주 사용했고 〈민중의 유산〉 시리즈에서는 민속 유물의 즉물성(卽物性)을 부각시키는 트리밍을 자주 보여주었다. 〈민중의 유산〉의 사진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 3.2.4. 세련된 광고

『뿌리깊은나무』는 광고에서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자체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관여한 광고를 잡지에 게재했다. 광고를 별도의 콘텐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광고가 지면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한 것이다. 『뿌리깊은나무』는 광고의 내용과 디자인 모두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뿌리깊은나무』 1976년 4월호의 본문에 실린 자그마한 박스광고 「광고의 광고」는 『뿌리깊은나무』의 광고 철학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에 뿌리 깊은 나무는 650,000원짜리의 황금같은 광고 셋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는 서로 경쟁하는 상품의 광고를 먼저 계약한 업체의 양해를 얻지 않고는 신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된 문안과 너무나 품위가 낮은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23 박암중. (2001). 73-74.

24 표지 사진의 특징과 의미에 관해선 전가경 논문을 참조. 전가경. (2016). 잡지 〈뿌리깊은나무〉의 표지 연구: 사진운영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18.

다. 또 하나는 광고되는 상품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절은 돈이 많아서 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잡지의 초창기에는 돈이 물쓰듯이 들어갑니다. <뿌리깊은 나무>에 광고하는 여러분들의 품위를 지키고 그들의 상품이나 용역의 광고에 되도록 큰 효과를 다짐해드리려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광고를 읽는 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그랬습니다. <뿌리깊은 나무>에 실는 광고는 광고주에게도 독자에게도 푸짐한 보답을 안겨줍니다.<sup>25</sup>

이러한 철학 위에서 『뿌리깊은나무』는 깔끔하고 세련된 광고를 디자인해 게재했다. 한창기도 “옛날의 잡지 광고들이 그달치의 목차를 파는 광고였다면 뿌리깊은 나무의 광고는 잡지의 성격을 파는 데에 관심이 쏠렸고, 표현 방법에서 좀 더 광고로서의 구색을 갖추도록 애썼다.”고 밝힌 바 있다.<sup>26</sup> 잡지에 실린 광고를 보면 화보형 전면 광고도 있지만 지면의 중간중간에 게재하는 광고가 특히 인상적이다. 지면을 세로로 나누어 지면의 한쪽(바깥쪽)에 배치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이 위치의 세로박스 광고는 특히 지면을 세련되게 구획하고 디자인했으며 광고 자체에서도 여백을 잘 살려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또한 여타 매체에 『뿌리깊은나무』를 광고할 때도 새로운 스타일의 카피식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sup>27</sup> 『뿌리깊은나무』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부각하고 다른 잡지와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광고는 문안을 읽고 싶은 욕망,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감상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 것이다.

### 3.3 전통 인식 측면의 특징과 성취

『뿌리깊은나무』는 종합문화교양지였고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었다. 문화, 역사, 전통, 예술, 일상과 시사 등 다양한 분야를 기사화해 수록했다. 예술비평(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과 포토에세이 등과 같이 기존의 잡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도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는 전통 문화였다. 잡지를 통해 전통 문화를

25 뿌리깊은나무. (1976). 뿌리깊은나무, 4, 113.

26 한창기. (1979). 한글만 쓰는 교양 잡지. 신문연구, 29, 182.

27 이러한 카피식 광고를 설득식 광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암중. (2001). 75.

다루는 것이 한창기의 기본 생각이었고 이러한 취지는 창간사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렇기에 전통 문화 콘텐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뿌리깊은나무』의 성취와 의미는 출판(잡지 편집디자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의 측면에서도 두드러졌다. 『뿌리깊은나무』에는 독자들이 전통 문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토박이 정서에 기초한 한글 전용, 시각적으로 충격을 주는 표지의 전통문화 이미지, 민속 문화유산을 흥미롭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민중의 유산> 기획시리즈가 대표적인 경우다.

토박이 정서와 한글 전용은 『뿌리깊은나무』의 존립 기반이었을 정도로 근본적이었다. 잡지의 얼굴인 표지 디자인은 독자들이 전통을 인식하는데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민중의 유산>은 내용과 편집 디자인에서 『뿌리깊은나무』를 대표하는 코너로 자리 잡으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3.3.1. 우리말과 민중 정서

한창기와 『뿌리깊은나무』는 창간사에서 드러낸 것처럼, 1970년대 전통이 단절되고 훼손되던 상황에서 전통 문화를 보존·전승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그 토박이 문화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말이었다. 이 취지에 따라 『뿌리깊은나무』는 1980년 강제 폐간 때까지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를 철저하게 실천했다. 이 같은 고집은 이후 잡지와 단행본은 물론이고 광고 문안에까지 확산되었다.

『뿌리깊은나무』를 발행하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인 1979년, 한창기는 ‘잡지와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뿌리깊은 나무」하면 사람들은 먼저 「한글 전용」을 떠올린다. 어른이 읽는 교양 잡지로서 한글만을 쓰는 잡지가 달리 없어 왔기 때문이다. (...) 한글 쓰기만을 고집했던 테에는 이 나라의 대중 매체로서 민중의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읽히는 잡지가 되어야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것은 어느 대중 매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sup>28</sup>

한창기와 『뿌리깊은나무』의 한글 전용주의는 그것이 단순히 한글이라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민중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한창기가

28 한창기. (1979). 180.

사랑한 우리말은 민중들이 사용한 말이다. 그렇기에 한창기의 우리말 사랑에는 민중 정서, 평등과 자주정신이 깔려 있다. 한창기가 강조한 우리말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말에 담겨 있는 민중 정서로 요약할 수 있다. 한창기는 우리말의 정확한 표현을 중시했으며 별로 배운 것 없는 평범한 민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강조했다.

글 다듬기와 함께 『목에 힘주는 글』이 없는 것도 뿌리깊은나무의 중요한 특징에 든다. 잡지의 기본 성격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학』자, 『론』자, 『적』자 따위가 붙는 글은 신지 않기로 뜻이 모였다. 『모택동 사후에 있어서의 중공의 방향』은 『모택동이 죽은 뒤에 중공이 나아갈 길』로 표현하기로 했고, 또 그런 표현으로 된 글만을 신기로 했다. 많은 민중이 책을 외면한다면 거기에는 지금까지 쓰여진 많은 학문과 언론의 글들이 민중의 입말과는 거리가 먼, 따라서 물 위에 뜬 기름과 같은 유식한 계층의 말로 쓰여진 탓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9</sup>

한창기가 한글로 잡지를 만들고, 이른바 ‘목에 힘주는 문장’이 아니라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어 세상에 내보낸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민중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한창기의 전통 인식의 출발점이었으며 『뿌리깊은나무』의 궁극적인 존재 가치였다. 이렇게 한창기의 우리말 사랑은 민중 정서와 일체화된 것이었고, 이것은 지식의 대중화, 지식의 민주화의 측면과 연결되기도 한다.<sup>30</sup>

### 3.3.2. 전통과 문화유산의 재발견

『뿌리깊은나무』는 민중 정서과 우리말 인식을 토대로 표지와 포토에세이(원색 화보) 등에 지속적으로 전통, 민속, 문화유산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우선, 잡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지에 다양한 문화유산의 사진이 실렸다.

『뿌리깊은나무』의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표지에 실린 사진 53건 가운데 전통과 민속, 문화유산과 관련된 것은 장승(1976년 4월호), 은산 별신제 무당(1976년 6월호), 고궁의 담(1976년 7월호), 풀망태(1976년 11월호), 낙선재 행랑채 문창살(1977년 2월호), 고종 당시의 태극기(1977년 3월호), 경복궁 꽃담(1977년 10월호), 송광사 부엌(1978년 2월호), 갑사 대

29 한창기. (1979). 181.

30 한보성. (2017). 지식의 민주화와 문화사회학의 등장. 반교어문연구, 45. 237.

적전 천정(1978년 6월호), 정림사지 보살상(1978년 7월호), 전통 붓(1979년 1월호), 한양도성(1979년 3월호), 화순군 다도면 흥씨 마을 민가(1979년 5월호), 운주사 석불(1979년 7월호), 궁중진연도(宮中進宴圖)(1979년 8월호), 쪽두(1979년 9월호), 안동 이천동 석불(1980년 8월호) 등 17건이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전통 문화의 여러 장르를 아우른다. 한양도성, 쪽두, 꽃담, 궁중진연도처럼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당시로서는 별로 주목 받지 못했던 문화유산이 다수 포함되었다.

포토에세이 코너에는 「돌과 민속」(1976년 4월호), 「백제와 오늘을 잇는 은산 별신굿」(1976년 6월호), 「농부와 땅」(1977년 1월호), 「낙선재」(1977년 2월호), 「활자와 인쇄문화」(1977년 3월호), 「옹기점」(1979년 6월호), 「활터」(1979년 8월호), 「골동품가게」(1979년 9월호), 「잊혀진 백제」(1979년 10월호), 「괘불재」(1980년 5월호), 「하회마을」(1980년 8월호) 등의 전통 및 문화유산 기사가 실렸다. 포토에세이는 『뿌리깊은나무』가 새로 창안했으며 그만큼 가장 공들여 만드는 지면이었다.<sup>31</sup>

그 외의 지면에도 「장승과 민중」(1977년 4월호), 「시골의 오일장」(1977년 7월호), 「민중 예술 판소리」(1977년 8월호), 「문화재 수집은 부자만의 특권일까?」(1977년 10월호), 「민요는 한 시대의 거울이다」(1977년 12월호), 「농악이 제 모습을 잃어간다」(1977년 12월호), 「한국 도깨비의 성질」(1979년 12월호), 「금관과 석굴암의 신라」(1980년 8월호) 등과 같은 전통 문화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

### 3.3.3. 기획시리즈 〈민중의 유산〉

전통문화 콘텐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민중의 유산〉 기획시리즈였다. 〈민중의 유산〉은 1976년 9월호에 신설되어 1980년 8월호 폐간호까지 총 4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sup>32</sup>

〈민중의 유산〉 코너에서는 우리의 민속생활 유물을 매회 하나씩 선정해 소개했다. 이 시리즈에 등장한 것들을 보면 짚신, 자라병, 기러기(목안), 곱돌 화로, 등잔대, 반진고리, 벼루, 소반, 목침, 표주박, 떡살, 능화판, 베갯모, 숟가락, 절구, 함지박, 주머니, 머리빗, 필통, 담뱃대, 자물통, 바늘집, 노약개, 부채, 패도, 활과 화살, 망건통, 향로, 연, 옷, 꽃담, 비너, 다듬잇돌, 뒤꽂이-귀이개-빚치개, 돛자리, 화관, 사모, 흥배, 붓, 갓, 무쇠술, 반상기, 땡기, 장독대, 맷돌, 창과 문, 북이었다. 대부분 의식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민속

31 손세일. (2008). 51.

32 1980년 6, 7월호는 합본호로 발간되었고 이에 따라 〈민중의 유산〉은 47회 연재가 진행되었다.

유물들로, 당시의 급속한 근대화 와중에 외면당하거나 훼손되기 쉬운 것들이었다.

1976년 9월호에 실린 첫 회에선 두 쪽에 걸쳐 짚신을 소개했다. ‘민중의 유산-짚신’이라는 큰 제목을 달고 그 밑에 ‘이제는 아무도 짚신을 신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의 영혼의 발에는 아직도 짚신이 신겨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소제목 붙였다.

집필은 예용해가 맡았고<sup>33</sup> 사진은 이남수가 담당했다. 예용해는 당시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자 문화재위원이었고 한창기와 깊게 교류하고 있었다. 한창기는 예용해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민중의 유산> 코너의 집필을 맡겼다.

예용해의 글은 맛깔스럽고 편안하며 때로는 유려하게 전개되어 독자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다. 예용해는 그 유물들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전승되었으며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설명했다. 동시에 해당 유물의 조형미와 문화사적 가치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다. 일부의 경우엔 골동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도 담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민중의 유산>은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사진을 함께 넣어 감각적이고 참신한 편집디자인을 선보였다. 전통과 문화유산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편집해 청신한 분위기를 보여준 경우는 당시까지의 잡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디자인은 전통이나 민속, 문화유산을 대중에게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글의 내용과 문체도 중요하지만 지면을 꾸미고 사진을 처리하는 방식 즉 편집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민속 유물을 근접 촬영한 뒤 윤곽선(아웃라인)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사진을 실었다. 해당 유물의 세부(디테일)를 살리면서 유물의 즉물성(卽物性)을 극대화한 것이다.<sup>34</sup> 이는 유물 자체의 독립성과 미학, 상징성 등을 세세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독자들은 이 사진과 편집디자인을 통해 해당 유물의 세부사항과 역사, 거기 담겨 있는 훼손의 흔적과 상처까지 만나게 되었다. 이 덕분에 전통과 민속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흥미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텍스트와 세련된 편집디자인에 힘입어 <민중의 유산> 기획시리즈는 전통과 민속은 고리타분한 대상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까지 주목받지 못한 평민문화, 생활문화의 영역에서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찾아

33 예용해는 <민중의 유산>을 연재하면서 지운이란 필명을 세 차례(1976년 9월호, 1977년 3월호, 1978년 10월호) 사용했다. 『뿌리깊은나무』에 본명으로 다른 기사를 게재할 때는 지운이란 필명을 사용한 것이다.

34 전가경. (2016). 잡지 <뿌리깊은나무>의 표지 연구: 사진운영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118. 236.

내는 과정이기도 했다.<sup>35</sup> 이렇게 <민중의 유산>은 읽는 잡지를 넘어 보는 잡지를 추구한 기획이었고 나아가 잡지를 통해 전통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3.3.4. 세련된 디자인과 전통의 복권

『뿌리깊은나무』의 전체 지면이 그러했듯 전통문화 콘텐츠들은 모두 세련된 편집디자인으로 독자들과 만났다. 표지와 <민중의 유산>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사진을 클로즈업해 편집했다는 사실이다. 사진 속 배경을 최소화하고 대상을 클로즈업하는 방식 즉 트리밍(trimming) 기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사진 트리밍 기법은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진 편집기법이다. 다른 수식이나 치장을 배제하고 대상의 본질에 천착하고자 할 때 이 기법을 활용한다. 그 결과, 사진은 단순해지지만 대상이 지닌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사진 기법을 동원한 표지 디자인은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전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을 클로즈업해 디자인하는 방식은 사진에 등장하는 전통과 민속, 문화유산을 낯설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sup>36</sup> 동시에 당시 그 때까지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온 전통 민중유산의 복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민중의 유산>은 디자이너 이상철이 디자인을 총괄하기 시작한 1976년 9월호부터 연재가 시작되었다. 이 기획은 『뿌리깊은나무』의 간판 기획 연재물로 자리잡았고 폐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뿌리깊은나무』는 제호의 한글 글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순 한글로 표기한 발행년월, 사진의 편집 방식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전통과 민속, 문화유산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련되고 강렬한 표지 디자인은 우리의 전통이나 민중 정서가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당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서양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다. 『뿌리깊은나무』의 표지는 전통과 민속, 문화유산에 대한 재해석이었고, 소외당하던 전통과 민속에 대한 세련된 복권 선언이었다.

35 이한빛. (2016). 산업화 시대의 문화기획: 1970년대 후반 ‘뿌리깊은 나무’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35.

36 이와 관련해 “표지사진이 전통적 소재를 다수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재의 진부함이나 익숙함보다는 참신함을 느끼는 이유는 전통적 소재에 대한 조형적 재해석이라는 의도에서 크로핑의 방법론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전가경. (2016). 239.

## 4. 『뿌리깊은나무』가 출판문화와 전통 인식에 미친 영향

### 4.1. 출판문화에 미친 영향

『뿌리깊은나무』는 “한국 잡지사는 뿌리깊은나무 이전과 뿌리깊은나무 이후로 구분된다”<sup>37</sup> 평가가 나올 정도로 잡지문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우선, 한글 전용 가로쓰기를 들 수 있다. 『뿌리깊은나무』의 한글전용 가로쓰기는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성공을 거두자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부터 여러 잡지와 단행본 그리고 광고문안까지 한글을 전용하는 추세로 바뀌어 우리나라 출판문화는 …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sup>38</sup>

특히 편집디자인의 일대 변혁을 가져와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아트디렉션 제도에서 출발했다. 파격적인 아트디렉션 제도는 편집디자인의 가치와 잡지의 시각적 개념을 이끌어냈다. 조잡한 레이아웃에 머물러 있던 당시의 편집 관행을 극복하고 “과감히 아트디렉션 제도를 도입하여 디자이너가 사진과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등 시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컨트롤하게 한 것이다.”<sup>39</sup> 『뿌리깊은나무』는 1980년 8월호로 폐간되었지만 편집디자인의 성취는 이후 『리더스 다이제스트』(1979년 창간), 『마당』(1981년 창간), 『멋』(1983년 창간) 등이 잡지로 이어졌다.

젊고 참신한 감각으로 편집디자인한 《마당》은 또 한 차례 잡지계에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던져주었다. … 《뿌리깊은나무》가 폐간당하고 잃어버렸던 독자를 소화, 흡수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기존의 독자층을 잃지 않고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모아 마케팅에 근거한 편집디자인과 편집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컬러 화면의 대폭 확대와 과감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운용, 참신한 레이아웃과 내용면에서는 현장감 있고 흥미 있는 르포 기사의 연재 등으로 인해 생동하는 잡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나갔기 때문이다.<sup>40</sup>

37 강준만. (2008). 샘이깊은물 당돌하고 발칙한 잡지. 특집! 한창기. 서울: 창비. 24.

38 한국잡지협회. (1995). 한국잡지 100년. 서울: 한국잡지협회. 29.

39 한국잡지협회. (1995). 65.

40 한국잡지협회. (1995). 68.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도 편집디자인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한창기가 언급한 것처럼, 포토에세이와 예술비평 기사를 처음 시도한 것도 잡지출판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을 다루는 예술비평 코너는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게재되었다. 그것도 잡지의 중간이나 뒤쪽이 아니라 맨앞쪽에 배치해 독자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성찰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잡지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뿌리깊은나무』가 출판계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고양한 것도 의미있는 영향으로 꼽을 수 있다. 『뿌리깊은나무』는 출판실명제를 도입했다. 목차 옆 판권기를 보면 제작에 참여한 직원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편집위원, 편집자, 미술디자이너, 부사장, 회계 담당 직원, 사업관리 직원, 판매 담당 직원, 정기구독 담당 직원까지 14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잡지의 판권기에 이렇게 많은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매달 잡지를 열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자 출판계 종사자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었다.

#### 4.2. 전통 인식에 미친 영향 : 전통의 시각화

『뿌리깊은나무』는 전통과 민중 정서, 민속과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역점을 두었다. 표지 디자인, 원색 화보, 〈민중의 유산〉 코너 등이 대표적이다. 표지에는 민속과 문화유산 사진을 클로즈업해 게재했고 〈민중의 유산〉 코너에선 민속 유물을 고급스러운 사진과 함께 세련된 편집디자인을 통해 소개했다. 포토에세이에서도 시원하고 수준 높은 사진을 중심으로 민속과 문화유산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모두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를 지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이라는 것을 민속 현장이나 박물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잡지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만날 수 있음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그것도 참신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통과 민속을 소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전통을 재해석하고 문화유산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창기가 진행한 민화 전시와 판소리 감상회도 전통의 시각화의 일환이었다. 1972년 4월 조자용과 함께 개최한 《한국 민화의 멋》 전시는 민화를 대중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민화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974년 1월부터 1978년 9월까지 진행한 〈뿌리깊은나

무 판소리 감상회)는 판소리를 듣고 보는 자리였다. 한창기는 판소리를 특정 공간에서 대중들이 함께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대표적인 공간예술인 고려청자를 박물관에서 언제든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대표적 시간예술로서의 판소리를 상설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펴던 것이다.”<sup>41</sup> 한창기는 박물관에서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듯이, 판소리 공연을 위한 상설 무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창기는 판소리를 공연무대에 올림으로써 그것을 시각화했으며 이에 힘입어 판소리는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이는 전통 공연과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한창기의 방식이었고 『뿌리깊은나무』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공연장이자 박물관이었다. 『뿌리깊은나무』가 실천한 전통의 시각화는 세련된 잡지 디자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통에 대한 부정적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창기는 잡지라는 매체의 시각적 특징과 효과를 최대한 활용했다.

한창기와 『뿌리깊은나무』는 전통을 과거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받아들였다. 전통은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미래에 추구해야 할 가치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기에 전통과 문화유산을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으며 그 현재성과 미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련된 디자인으로 끊임없이 시각화했다.

뿌리깊은나무는 모든 전통 문화를 복원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되살릴 가치가 있는 전통 문화를 근대의 눈으로 골라내었고, 골라낸 전통 문화는 근대의 방법과 기술로 정리했다. 판소리 전집에 붙인 사설집이나, 민중 자서전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원형을 살렸지만, 기록의 방법과 원전 비평의 수준은 가장 근대적이었다. 오히려 방짜 유기 또한, 전통적 방법으로 재현했지만 포장이나 디자인은 가장 근대적이었다. 뿌리깊은나무는 국민을 근대 합리주의의 세계로 이끌기 위하여, 필요한 전통과 문화를 선별하고, 이를 근대의 모양으로 다듬어가는 일을 통해 전통을 발명하려 했던 것이다.<sup>42</sup>

『뿌리깊은나무』는 전통과 민속, 문화유산을 현대적 감각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낯설게 보여줌으로써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새롭게 개척했다. 낯선 디자인으로 대중들에게 강렬하게 각인시킴으로써 전통과 민속, 문화유산도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시각적 이미지와 디자인을 중시한 『뿌리깊은나무』

41 이태화. (2015). 229.

42 장경식. (2008).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물: 전설로만 떠돌게 할 것이냐?. 특집! 한창기. 서울: 창비. 178-179.

의 편집 방향은 ‘지식 전달의 시각화’로 평가받기도 한다.<sup>43</sup>

이렇게 『뿌리깊은나무』는 전통과 문화유산의 시각화를 실천하는 마당이었다. 그 전통과 민속을 낯설고 세련된 편집디자인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 5. 맺음말 : 잡지 미학을 통한 전통 인식

한창기는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공유하고 전승하기 위해 『뿌리깊은나무』를 창간했다. 산업화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전통 문화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던 1970년대 상황에서 『뿌리깊은나무』를 통해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한 것이다. 한창기는 우리말과 민중 정서에 토대를 둔 일상에서 전통문화가 비롯한다는 점, 그 전통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향유하고 전승하려면 그것을 세련되고 시각적인 형식과 매체를 통해 수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그리고 현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천했다. 이것이 한창기의 전통 인식이었고, 그러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실천의 장(場)이 월간지 『뿌리깊은나무』였다.

『뿌리깊은나무』는 한국 잡지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수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과 민중의 콘텐츠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다. 그때까지 한국의 잡지계와 전통 문화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낯선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한글 전용 가로쓰기와 표지 디자인, 포토에세이와 <민중의 유산> 등의 콘텐츠에서 두드러졌다. 이것은 전통이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 시대에 전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전승할 것인지, 이를 위해 잡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창기의 고민의 결과였다.

낯설고 세련된 형식의 잡지를 통해 대중들은 잡지의 또 다른 존재 의미와 미학, 전통과 문화유산과 민중의 일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 전통과 민속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뿌리깊은나무』는 잡지가 본격적·전면적으로 전통을 다루는 시발점이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출판 문화와 전통 인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43 이한빛. (2016). 53-59.

## **[References]**

- Kang Woon-gu etc. (2008). Special! Han Chang-ki. Seoul: Changbi.
- Kim Geun-soo. (1992).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Magazine. Seoul: Korean Studies Institute.
- Kim Hyung-yoon. (2014). Han Chang-ki's thoughts on deep-rooted trees. Words and writings, 140.
- Park Am-jong. (2000). A Study on the Editing and Design of Deep-rooted Trees in Cultural Heritage Areas. Dongseoul University Magazin, 1.
- Suncheon's City Deep Rooted Tree Museum. (2011). The Deep Rooted Tree. Suncheon: Suncheon's City Deep Rooted Tree Museum.
- Suncheon's City Deep Rooted Tree Museum. (2015). The Legacy of the People. Suncheon's City Deep Rooted Tree Museum.
- The Korean Magazine Association. (1995). 100 Years of Korean Magazine. Seoul; The Korean Magazine Association.
- Han Chang-ki (1974). The Sociolinguistic Study of Korean Linguistic Metho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Newspap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잡지 『뿌리깊은나무』가 출판문화와 전통 인식에 미친 영향

이광표

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부교수

###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월간지 『뿌리깊은나무』(1976년 3월~1980년 8월)는 한국잡지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논문은 전통과 문화재의 관점에서 『뿌리깊은나무』의 전통 요소와 발행인 한창기(1936~1997)의 전통 인식을 고찰했다.

**연구 방법** 한창기 선생이 주관하여 발행했던 월간지 『뿌리깊은나무』(1976년 3월~1980년 8월) 전체 내용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 잡지가 지닌 한글 전용 가로쓰기, 표지 디자인, <민중의 유산> 기획 시리즈가 지닌 의미 등을 탐색해 보았다.

**결론** 한창기는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 공유하고 전승하기 위해 『뿌리깊은나무』를 창간했다. 『뿌리깊은나무』는 전통과 민중의 콘텐츠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다. 그때까지 한국의 잡지계와 전통 문화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낯선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한글 전용 가로쓰기와 표지 디자인, <민중의 유산> 기획시리즈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것은 전통과 문화재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수용하고 전승할 것인지에 대한 한창기의 고민의 결과였다.

한창기의 전통 인식과 『뿌리깊은나무』의 실천 방식은 전통과 민속과 문화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핵심어** 한창기, 한글 전용, 가로 쓰기, 디자인의 혁신, 전통의 시각화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 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